

“전북대 간호대학의 경쟁력이 이어지길”

간호대 대학원생 34명 후학양성 위해 5천400만원 기탁

봉사와 헌신의 상징인 간호대 학생들의 손과 마음이 대학과 후배들을 위한 아름다운 사랑이 되어 전해졌다.

간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 34명이 대학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써달라며 개별 약정으로 5,4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한 것



지난 20일 전북대 총장실에서 간호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 학생 34명이 대학발전과 후학양성을 위해 5,400만 원의 발전기금을 기탁했다.

이다. 이들은 간호사 국가고시나 취업률 등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전북대 간호대가 더욱 경쟁력을 갖고, 후배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려운 기부를 결심하게 됐다고. 모두들 학업과 연구를 이어나가고 있는 대학원생이기 때문에 기금을 마련하는 것이 녹록치 않지만 대학과 후배들에 대한 애정 하나로 뚝뚝 뚫었다.

간호대 대학원생들은 전북대가 개교 70주년을 맞은 지난해에도 31명이 모여 4천700만 원의 기금을 모아 가장 한국적인 캠퍼스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와·현수 캠페인에 동참하는 등 모교에 대한 진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20일 오전 11시 전북대 총장실에서 열린 기탁식에서 오영주 박사과정 대표와 접수기 석사과정 대표, 그리고 김현옥 간호대학장, 강경희 부학장 등이 자리한 가운데 기탁증서와 감사패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 기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간호대학에 지정 기탁돼 학생 교육여건 개선 등에 쓰일 예정이다. 오영주 박사과정생은 “이 기금은 타인을 위한 희생과 봉사 정신을 가져야하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뿌리를 더욱 강건하게 지키고 발전시켜나가는 데 나뉠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들이 모여 만들어진 것”이라며 “간호대학 후배들이 보다 좋은 환경에서 공부해 전국 최고라는 전북대 간호대 경쟁력을 드높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최백규씨, 모교 정읍 덕천초교에 학교 발전기금 2000만원 기탁

정읍 덕천초등학교 최백규(20회, 88세) 동문은 지난 19일 모교에 학교 발전기금으로 2,000만원을 기탁했다.



최백규 동문은 덕천면 망재리가 고향으로 “일제강점기에 어렵게 학교를 다니면서 고생도 많이 했지만 꿈 많았던 어린 시절을 보낸 덕천초등학교를 잊지 못한다며 자라나는 후배들을 위해 오래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일에 써 주었으면 한다”고 기탁배경을 설명했다.

최백규 동문은 덕천초등학교와 정읍농림고등학교(41회)를 졸업하고 서울로 상경하여 노동과 행상을하며 자수성가했고, 서울대학교의과대학, 마포인재육성재단 등에 상당액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우 덕천초등학교장은 “후배를 사랑하는 동문님의 깊은 뜻에 감사드리고 기탁해주신 발전기금은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학생들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며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김재훈 기자

임실 록,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임실경찰서(서장 김광호)는 20일 11시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 범죄를 저지른 범법자들을 대상으로 처벌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로, 이번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서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 실무위원 3명, 외부 시민위원 3명(교수 2명, 변호사 1명)이 참가해 심사대상자 5명에 대하여 심의했다.

그 결과 피해의 정도, 죄질,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기타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대상자 5명 모두 즉결심판 처분으로 감경처리했다. 김광호 임실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전과자 양상을 방지하고 사회적인 배려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해 국민신뢰 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

/임실=진홍영 기자

고창룡 청문실, 여직원과 바른 조직문화 다짐 대화 가자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감사실에서는 최근 여성 선후배간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고 올바른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기존의 형식적인 간담회를 탈피하여 격의 없는 소통분위기가 조성되고 공직자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사명감 있는 공직생활을 해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김지연 경사는 “지속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여 선배로서 후배들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나 자신부터 경각심을 갖고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김성재 서장은 “말은바 역할에 충실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함은 물론 직장 내 성 비위 예방 등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사)러브인월드, 청소년 후원금 200만원 전달

(사)러브인월드(대표 신효근)는 20일 오수면사무소를 찾아 관내 저소득 청소년의 교육비 지원에 힘써 달라며 후원금 200만원을 오수면에 전달했다. 전달한 후원금은 임실군 오수면 관내 저소득 청소년 10명의 교육비, 학용품 마련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신효근 이사장은 “지역사회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후원금을 통해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힘을 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불우청소년 및 소외계층에 대한 후원금 전달, 의료봉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강삼 오수면장은 “우리지역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며 “청소년들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인재로 밝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농협 정읍지부, 전북과학대학교 현철주 교수 정읍시 고부면 덕안마을 명예이장 위촉

농협중앙회 정읍시지부(지부장 조천형)와 황토현농협(조합장 옥익호)은 20일 정읍시 고부면 덕안마을에서 또 하나의 마을 만들기 명예이장 위촉식을 개최하고 전북과학대학교(총장 황인창) 방송연예미디어과 현철주 교수를 덕안마을 ‘명예이장’으로 위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병욱 고부면장, 조천형 농협정읍시지부장, 옥익호 황토현농협조합장, 전북과학대학교 현철주 방송연예미디어과 교수, 두하영 안경과학과 교수 및 학생들과 이조형 영농회장 및 마을주민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명예이장 위촉식을 갖고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웃음치료 및 행복사진 촬영 등을 실시했다.

조천형 지부장은 “마을주민들과 함께 활기찬 ‘또 하나의 마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 하였으며, 이에 현철주 교수는 “명예이장으로서 마을주민들의 건강과 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대한적십자 전북지사 순창지역 취약계층 물품지원

삼성지정기탁물품이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를 통해 순창지역 취약계층에게 전달됐다.

20일 대한적십자사 전북지사 이건용 사무처장 및 황진희 순창지회장 및 회원 20여명은 순창군청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건강, 고추장, 밀가루 등 이 포함된 부식세트 106세트를 전달했다.

대한적십자사 관계자는 “전달되는 물품들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면서 “많은 분들이 사회를 밝게 하는 적십자사 활동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순창=이원영 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명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